

<재일대한기독교회> 한국 7 교단 선교협의회 개최



금번 협의회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계속해서 협력해 가기로 한 사항은, 전도집회에 강사파견, 개척교회 지원, 한일 대조 찬송가 발행과 한일대조 성서 반포 사업의 협력, 재일동포 차세대 지도자의 모국어 연수 및 모국교회 목회연수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면서 각 교단에 재일대한기독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일을 정하여 정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 총회가 주최하는 한국 7개 교단과의 선교협의회가 동경 근교의 후지하코네랜드에서 지난 9월 29일(월)-10월 1일(수), 2박 3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일본의 보수 정권에 의한 우경화로 인하여 증오 선동 데모(헤이트 스피치)에 대항하여 2015년 11월에 일본 동경에서 가지는 제3회 마이너리티 선교전략 국제회의 개최에 적극협력하기로 하였다.



선교협약 관계를 가지고 교류하고 있는 한국 7교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백석, 통합, 합동),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으로, 금번 협의회에는 각 교단의 총회가 끝난 직후이기도 하며 실무자의 교체와 교단 합병 등의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교단을 제외하고 기감, 기성, 통합, 기장 등 4교단에서 총회장, 총무(사무총장), 해외담당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2015년)을 기념으로 7교단이 협력하여 해방 70주년 기념교회를 설립하여 평화 운동의 거점으로 삼자는 중요한 의견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금후 이러한 선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가지기로 하며 각 교단 실무자들이 협의하기로 하였다.



본 총회에서는 총회 임원을 비롯하여 지방회장 및 각 교단에서 파견된 선교사 대표 등 30여 명이 모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보고 : 편집부)